

글리신 수입가격 "급등"

중국 글리신 파동 여파 ... 일본산 덩달아 가격인상

글리신 수입가격이 다시 오름세로 반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본산과 함께 국내에 수입돼 왔던 중국산 글리신이 현지의 원인모를 품귀 현상으로 인해 신용장마저도 개설할 수 없게 되자, 한동안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글리신 수입가격이 95년들면서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그동안 일본산이 20억정도인 국내 글리신 시장을 거의 독차지해 왔으나 93년부터 중국산이 유입, 과점체제를 형성하면서 천정부지로 오르던 글리신 수입가격도 누그러지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글리신 수입가격이 93년 Kg당 4.5달러선에서 94년 3.2달러선으로 급락하는 등 최근까지 이 같은 시장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처럼 중국산에 견재당했던 일본산이 이번 글리신 파동을 틈타 시장전략을 강화하는 등 대폭적인 가격인상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5년3월 현재 일본산 수입가격은 Kg당 3.5 3.7달러선으로 94년초 3.0 3.2달러선에 비해 17%정도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중국산은 Kg당 2.5 2.7달러선으로 94년초 1.5 1.7달러선에 비해 67% 급등했으며 그마저 물량부족으로 거의 들여올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중국산을 수입해 정제·생산하고 있는 선명 및 일신케미칼은 현재 재고물량으로 근근히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조만간 조업을 중단할 형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중국 글리신 파동이 설을 전후로한 일시적인 공급부족 현상으로 파악됐으나 최근들어 장기화조짐마저 보임에 따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결국, 당분간 일본산 수입가격은 계속 오를 전망으로 있어 글리신 대량 소비기업인 농심·삼양라면 등 식품업계에 상당한 생산비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글리신 수요는 94년 695톤으로 93년 575톤에 비해 20.9%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91년 719톤, 92년 586톤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94년기준 국가별 글리신 수입은 일본산이 590톤으로 85%, 중국산이 105톤으로 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미노산의 일종인 글리신은 라면 등 면류를 비롯해 육가공, 제과 및 기타 식품가공에 비타민C를 안정화시키는 효력이 있으며 맛·품질·색깔 등을 증가시키는 작용도 있다.

또 통조림에서 깡통의 부식성을 감소시키며 의약품 및 사료첨가물, 화장품 원료로도 사용되는 등 그 용도는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1995/4/3>